

제5기 역사문화아카데미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시 기행”

특별전시 ‘제주의 물그릇과 섬그릇’ 연계 강좌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지질학적 특성과 가치

일 자 : 2013년 5월 8일(수)

장 소 : 국립공주박물관 세미나실

강 사 : 손 영 관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본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강의는 정시에 시작되오니 강의 5분전 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강의 시작 이후부터 중간 쉬는 시간 전까지는 강의실에 들어올 수 없으며, 강의 도중 강의실 밖으로 나갔을 경우에도 중간 쉬는 시간 전까지 강의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 (3) 추가로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학술/교육/행사→교육자료에서 교재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강의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제5기 역사문화아카데미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시 기행”

특별전 “제주의 물그릇과 섬그릇” 연계 강좌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지질학적 특성과 가치

발행 국립공주박물관
우)314-020 충남 공주시 관광단지길34
TEL/(041) 850-6365 FAX/(041) 850-6350
gongju.museum.go.kr

(재)중앙문화재연구원
우)305-500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7로 32-9
TEL/(042) 933-2700 FAX/(042) 933-7300
www.jungang.re.kr

인 쇄 (주)계문사 / (02)725-5216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지질학적 특성과 가치

손 영 관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1. 지질유산의 개념과 분류체계

지질유산(geoheritage)의 개념은 우리 발밑의 암석과 눈앞에 펼쳐진 지형경관이 수십억 년의 지구역사를 통해 일어난 다양한 지질작용 그리고 생물과 인류의 진화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유일한 기록물이며, 이 지질학적 기록물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지질유산이란 용어는 지질학의 발생지이자 중요한 지질명소(geosite)의 보호에 관심을 지녀온 영국의 지질학자들에 의해 쓰이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지질유산의 개념은 지질학적 사물이나 장소의 보존·보호를 위해 생겨났지만 지구의 비생물계에서 주로 일어나는 지질작용이 인류의 삶은 물론 생물계를 포함한 지구환경 전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지질유산 및 지질보존의 개념은 지질교육(geoeducation), 지질관광(geotourism), 그리고 다양한 환경계획 및 환경관리의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¹⁾

1972년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된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은 전 인류적으로 탁월한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지닌 문화적·자연적 자산을 찾아내어 보존을 도모하고 그 유산을 후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이를 근거로 1976년부터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가 활동을 시작하였다.

1) 손영관, 우경식, 권창우, 김련, 전용문, 2009, 「지질유산과 지질모니터링: 제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질학회지』 v. 45, p. 751-770.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이행을 위한 실행지침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에 제시된 10개의 기준(6개의 문화유산 기준과 4개의 자연유산 기준)에 근거하여 세계유산목록을 선정하여왔는데, 이중 여덟 번째 기준이 “지질”과 관련이 있는 기준이다. ‘실행지침’에 제시된 기준에 따르면 어떤 지질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소 중 어느 하나에 있어 OUV를 인정받아야 한다.

1. 지구역사 : 조산운동, 화산활동, 판 또는 대륙의 이동, 열곡의 생성과 같은 지각 운동, 운석 충돌, 그리고 과거의 빙하작용과 같이 지구의 진화과정 중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지질학적 사물.
2. 생명의 기록 : 화석산지.
3. 지형발달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중요한 지질작용 : 건조 또는 아건조 기후대의 사막작용, 빙하작용, 화산작용, 육지와 바다의 질량이동, 하천 및 삼각주 작용, 그리고 연안 및 해양 작용과 같이 지구 표면의 지형을 현재 활발히 만들고 있거나 현재까지 만들어온 지질작용.
4. 중요한 지형적 또는 지리적 사물: 사막의 지형, 빙하와 빙모, 화산과 화산 시스템(사화산 포함), 산맥, 하천지형과 계곡, 연안과 연안지형, 산호초, 환초, 해양도, 빙하 및 주빙하 지형, 동굴과 카르스트 지형 등 현재 또는 과거의 지질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적 사물.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를 바탕으로 지질유산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 시행규칙에는 1) 지각의 형성과 관련되거나 한반도 지질계통을 대표하는 암석과 지질구조의 주요 분포지와 지질경계선, 2) 지질시대와 생물의 역사 해석에 관련된 주요 화석과 그 산지, 3) 한반도 지질현상을 해석하는데 주요한 지질-퇴적구조와 암석, 4) 학술적 가치가 큰 자연지형, 그리고 5) 기타 학술적 가치가 높거나 희귀한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지질학적-지형학적 사물들이 지질유산 또는 지구과학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또는 시도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는 지질유산 또는 “지구과학기념물”은 약 90여 개이다. 이 중 동굴과 화석산지가 60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상절리와 같은 암석의 구조, 해안사구, 해안단구 등의 지형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각운동과 관련된 단층이나 습곡 등의 지질구조, 각 시대별 대표 지층이나 지질경계의 표식단면 또는 층서학적으로 중요한 지점, 특이하거나 희귀한 광물 또는 광물의 산출지, 과거 또는 현재의 풍화-침식-

퇴적과정을 잘 보여주는 지질학적 사례나 대표적인 지형으로서 지구과학기념물로 지정된 사례는 극히 드문 실정이다. 2007년 뛰어난 경관과 더불어 “대륙붕형 순상화산”으로서의 지질학적 가치, 그리고 용암분출과 수성화산활동이 만들어낸 지질다양성 때문에 세계자연유산 목록에 등재될 수 있었던 제주도의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조차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분류되어있을 뿐 “지구과학기념물”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기념물로 지정된 지질유산의 수가 선진외국과 비교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며, 지정된 기념물조차도 한반도의 지질다양성을 대표하지 못하고 일부 항목에 집중되어있는 실정이다. 지질유산으로서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조차 국내에선 지질유산으로서 충분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격의 지질유산을 찾아내고 가치를 부여하며 기념물 지정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²⁾

2. 제주도의 형성과정

제주도의 화산활동은 신생대 제4기(약 18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시작되었다.³⁾ 이 시기는 인류의 원시 조상이 출현한 시기이며 빙하기와 간빙기가 수만 년 주기로 교차하며 고생대 이후 가장 한랭한 기후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의 빙하기-간빙기 교차에 의해 해수면이 130여 m씩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제주도 형성 이전의 남해 지역은 빙하기 때는 드넓은 평야지대가 되었다가 간빙기가 되면 수심 100여 m의 대륙붕이 되기를 반복하였다.

제주도의 화산활동은 수성화산활동水性火山活動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 이유는 물이 풍부한 대륙붕 위에서 화산활동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뜨거운 마그마가 차가운 물과 만나면 마그마는 급격히 냉각되고 부스러지며, 물은 급격히 기화하고 팽창하여 폭발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화산분출 양식을 수성화산활동이라고 하는데,

2) 손영관, 우경식, 권창우, 김련, 전용문, 2009, 위의 책

3) 고기원, 1997, 『제주도의 지하수 부존특성과 서귀포층의 수문지질학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박사 학위논문, p. 326.

제주도의 수성화산활동은 1백만 년이 넘도록 지속되었다. 그 결과 제주도의 용암대지 밑에는 무수한 수성화산이 여러 겹으로 겹쳐 쌓이게 되었고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육지와 바다에 쌓여 “서귀포층”이라는 지층을 만들게 되었다.⁴⁾ 이때 만들어진 수성화산의 일부는 용암대지 위로 돌출해 있으며, 단산, 군산, 용머리, 당산봉 등이 그 예이다.⁵⁾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서귀포층이 쌓여감에 따라 제주도 지역의 고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결국은 빙하기의 평균적인 해수면(현 해수면 下 50~60 m 고도) 위로 제주도가 성장하여 간빙기 때도 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 높은 지형(섬)이 만들어졌다. 그러자 수성화산분출은 점차 줄어들고 중기 플라이스토세(약 40~80만 년 전 사이)부터는 용암 분출이 우세하게 일어났다. 이렇게 분출한 용암은 서귀포층 위에 겹겹이 쌓이며 서서히 넓은 용암대지를 만들어 나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원형의 제주도가 서서히 만들어졌으며, 용암분출은 섬의 중심부에 집중되어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생인류가 출현하여 구석기 문화를 이루던 수만 년 전에는 남한의 최고봉인 한라산이 제주도의 한복판에 만들어지게 되었고 제주도는 거의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구환경이 지금과 거의 동일해지고 현생인류가 신석기 문화를 이루던 현세 중기(약 7천~5천 년 전)에 마지막 수성화산분출이 제주도의 동쪽 끝과 서남단에서 일어났으며, 이 분출에 의해 성산일출봉과 송악산이 만들어졌다.⁶⁾ 이 화산들이 침식되며 주변 연안에 신양리층과 하모리층과 같은 현세퇴적층이 쌓였고, 그 위에는 선사시대의 사람발자국이 만들어지기도 했다.⁷⁾ 제주도의 화산분출은 역사시대까지도 지속되었다.

4) Sohn, Y.K., Park, K.H., Yoon, S.H., 2008, 「Primary versus secondary and subaerial versus submarine hydrovolcanic deposits in the subsurface of Jeju Island, Korea」 『Sedimentology』 v. 55, p. 899-924.

5) Sohn, Y.K., Park, K.H., 2005, 「Composite tuff ring/cone complexes in Jeju Island, Korea: possible consequences of substrate collapse and vent migration」 『Journal of Volcanology and Geothermal Research』 v. 141, p. 157-175.

6) Sohn, Y.K., Park, J.B., Khim, B.K., Park, K.H., Koh, G.W., 2002, 「Stratigraphy, petrochemistry and Quaternary depositional record of the Songaksan tuff ring, Jeju Island, Korea」 『Journal of Volcanology and Geothermal Research』 v. 119, p. 1-20.

7) 조등룡, 박기화, 진재화, 홍완, 2005, 「제주도 하모리층에 발달하는 사람 발자국의 형성시기」 『암석학회지』 v. 14, p. 149-156.

3. 제주도의 수성화산활동

제주도에 널려 있는 수많은 오름 또는 화산추volcanic cone 중에서 그 모양과 멋이 가장 두드러져 수많은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일출봉은 다른 오름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왜 생긴 것일까?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잠시 1963년의 아이슬란드 바닷가로 시간여행을 떠날 필요가 있다. 1963년 아이슬란드의 남쪽 바닷가 한 곳에서 바닷물이 부글거리며 요동을 치기 시작했다. 바다 속에서 용암이 분출하며 화산섬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이 섬이 수면 가까이 성장하게 되자 용암 분출이 멈추고, 바닷물에 뒤섞인 검은 화산재와 물방울, 그리고 하얀 수증기가 거대한 분수와 같이 하늘을 향해 치솟으며 분출이 일어났다. 이렇게 몇 달간 지속된 분출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 바로 셋치Surtsey 화산이었다. 화산분출하면 높은 화산의 분화구에서 붉은 용암이 흘러나오고 뜨거운 화산재가 버섯구름처럼 하늘로 올라가는 모양을 떠올리던 사람들에게, 바다 속에서 일어난 화산 분출은 뜻밖의 일이었다. 더구나 바닷물에 젖어 축축하고도 차가운 화산재가 분출되다니! 이 뜻밖의 화산분출로 인해 사람들이 처음 인식하게 된 자연현상이 바로 수성화산활동水性火山活動이다.⁸⁾

제주도에 나타나는 암석은 온도가 2000°C에 가까운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 후 용암이 되어 흐르다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뜨거운 마그마가 지표를 향해 올라오던 도중 지하수를 만나거나, 지표로 분출한 후 바닷물이나 호숫물 또는 빙하와 같은 얼음을 만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마그마나 용암은 차갑게 식어버리고 물은 뜨겁게 가열되는데, 이런 냉각과 가열반응은 물의 급격한 기화로 인해 매우 격렬하게 일어나고 경우에 따라 큰 폭발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1963년 아이슬란드의 셋치 화산과 일출봉을 만든 수성화산활동의 원인이다.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생긴 화산재는 마그마나 용암이 물에 의해 급격히 냉각되며 산산이 부스러져 분출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성질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 차이점이 있다면 색깔과 모양이 좀 다르다는 것 정도일

8) Thorarinnsson, S., 1967, 「Surtsey: The New Island in the North Atlantic」 『The Viking Press, Inc.』, New York.

뿐이다. 이렇게 수성화산활동에 의해 생긴 유리질 화산재가 쌓여 만들어진 기생화산 또는 소규모 화산체는 ‘응회구’ 또는 ‘응회환’이라고 부름으로써 여타 화산체와 구별한다. 제주도에 분포하는 대부분의 기생화산은 ‘분석구’이며, 이들은 구성 물질은 물론 화산체의 크기와 형태에 있어 응회환 또는 응회구와 구별된다.⁹⁾

응회환은 분화구가 대체로 크고 깊으며, 분화구 주변의 화산재층 또는 응회층이 작은 경사(15° 이내)와 낮은 높이(100m 이내), 그리고 넓은 분포를 갖는다. 반면 응회구는 분화구가 지면보다 훨씬 높은 곳에 나타나고, 응회구를 이루는 화산재층이 큰 경사(30° 내외)와 높이(100m 이상)를 가지고 있다. 분화구의 바닥이 해발 90m에 있으며 높이가 180m에 이르고, 경사가 30°를 넘는 유리질의 화산재층으로 구성된 일출봉은 전형적인 응회구의 범주에 드는 화산체이다.

4. 제주도의 주요 지질유산

4.1.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도 순상화산의 중심 봉우리이며, 1,950m의 해발고도로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상징이자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일어난 제4기 화산활동의 대표적인 산물이기도 하다. 한라산은 정상부의 백록담 분화구, 영실기암의 가파른 암벽과 약 40여개의 오름 등 여러 화산지형을 갖고 있다. 풍화와 침식에 의해 순상화산의 원래 지형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한라산은 1966년과 1970년에 각각 천연기념물(제182호)과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한라산 국립공원 내의 인간 활동은 엄격하게 통제되어 왔으며, 화산지질 및 화산지형과 더불어 독특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갖게 되었다. 이런 연유로 2002년과 2007년에는 각각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다.

9) Sohn, Y.K., 1996, 『Hydrovolcanic processes forming basaltic tuff rings and cones on Cheju Island, Korea』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Bulletin』 v. 108, p. 1199-1211.

4.2. 만장굴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에 위치하는 만장굴은 전체길이 약 7,400m, 최대 높이 약 25m, 최대 폭 약 18m로서 제주 세계자연유산의 한 부분인 거문오름용암동굴계에 속하는 용암동굴이다. 지점에 따라 2층 또는 3층 구조가 발달하는 용암동굴로서 제주도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세계적으로도 큰 규모에 속하는 용암동굴이다. 수십만 년이라는 매우 오래 전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동굴임에도 불구하고, 동굴 내부의 구조와 형태, 미지형, 동굴생성물 등의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는 물론 경관적 가치도 대단히 큰 동굴로 평가된다.

4.3. 성산일출봉

해 뜨는 오름으로 불리는 성산일출봉은 전형적인 응회구이며, 높이 179m로 제주도 동쪽 해안에 거대한 고대의 성곽처럼 우뚝 솟아있다. 이 응회구는 해수면의 위치가 현재와 거의 동일했던 약 5천 년 전 수심이 얇은 해저에서 수성화산 분출작용에 의해 생성되었다. 성산일출봉은 2000년과 2007년에 각각 천연기념물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성산일출봉은 수려한 경관을 제공하여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성산일출봉 응회구는 수심이 얇은 해저에서 분출하여 해수면 위로 성장한 셋치형 화산의 탄생과 성장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¹⁰⁾ 성산일출봉은 셋치형 수성화산 분출에 만들어지는 거의 모든 종류의 퇴적구조들을 간직하고 있어, 성산일출봉의 과거 화산활동과 퇴적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수성화산에 대해서도 분출 및 퇴적작용 해석의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10) Sohn, Y.K., Chough, S.K., 1992, 「The Ilchulbong tuff cone, Cheju Island, South Korea: depositional processes and evolution of an emergent, Surtseyan-type tuff cone」 『Sedimentology』 v. 39, p. 523-544.
Sohn, Y.K., Cronin, S.J., Brenna, M., Smith, I.E.M., Németh, K., White, J.D.L., Murtagh, R.M., Jeon, Y.M., Kwon, C.W., 2012, 「Ilchulbong tuff cone, Jeju Island, Korea, revisited: A compound monogenetic volcano involving multiple magma pulses, shifting vents, and discrete eruptive phases」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Bulletin』 v. 124, p. 259-274.

참고문헌

- 고기원, 1997. 제주도의 지하수 부존특성과 서귀포층의 수문지질학적 관련성,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박사학위논문, p. 326.
- 손영관, 우경식, 권창우, 김련, 전용문, 2009. 지질유산과 지질모니터링: 제주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질학회지, v. 45, p. 751-770.
- 조동룡, 박기화, 진재화, 홍완, 2005. 제주도 하모리층에 발달하는 사람 발자국의 형성시기. 암석학회지, v. 14, p. 149-156.
- Sohn, Y.K., 1996. Hydrovolcanic processes forming basaltic tuff rings and cones on Cheju Island, Korea.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Bulletin, v. 108, p. 1199-1211.
- Sohn, Y.K., Chough, S.K., 1992. The Ilchulbong tuff cone, Cheju Island, South Korea: depositional processes and evolution of an emergent, Surtseyan-type tuff cone. Sedimentology, v. 39, p. 523-544.
- Sohn, Y.K., Park, K.H., 2005. Composite tuff ring/cone complexes in Jeju Island, Korea: possible consequences of substrate collapse and vent migration. Journal of Volcanology and Geothermal Research, v. 141, p. 157-175.
- Sohn, Y.K., Park, K.H., Yoon, S.H., 2008. Primary versus secondary and subaerial versus submarine hydrovolcanic deposits in the subsurface of Jeju Island, Korea. Sedimentology, v. 55, p. 899-924.
- Sohn, Y.K., Park, J.B., Khim, B.K., Park, K.H., Koh, G.W., 2002. Stratigraphy, petrochemistry and Quaternary depositional record of the Songaksan tuff ring, Jeju Island, Korea. Journal of Volcanology and Geothermal Research, v. 119, p. 1-20.
- Sohn, Y.K., Cronin, S.J., Brenna, M., Smith, I.E.M., Németh, K., White, J.D.L., Murtagh, R.M., Jeon, Y.M., Kwon, C.W., 2012. Ilchulbong tuff cone, Jeju Island, Korea, revisited: A compound monogenetic volcano involving multiple magma pulses, shifting vents, and discrete eruptive phases.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Bulletin, v. 124, p. 259-274.
- Thorarinsson, S., 1967. Surtsey: The New Island in the North Atlantic. The Viking Press, Inc., New York.

MEMO

【 제5기 역사문화아카데미 】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시 기행”

- 일 시 : 2013. 03. 27(수)~11. 20(수) / 15:00~17:00(단, 1차는 14:00~17:00)
- 장 소 : 국립공주박물관 세미나실
- 강의 일정 및 강의 내용

주제	연번	일자	강의 내용	특별전시 일정
국립공주 박물관에서 느끼는 제주 문화	1차	03.27.	제주의 역사와 문화 (김동전, 제주대학교 박물관장) 특별전시 “제주의 물그릇과 섬그릇” (김진경, 국립공주박물관 학예연구사)	제주의 물그릇과 섬그릇 (03.12.~05.26.)
	2차	04.03.	제주의 이야기, 본풀이, 신앙 (김현선,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3차	04.10.	제주 전통건축의 공간미학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4차	04.17.	제주도 옹기 - 허벅을 중심으로 (이경효,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5차	04.24.	계룡산 분청사기 (김영원,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6차	05.01.	제주도의 또 다른 문화를 들여다보기 - 제주유배문화 - (양진건,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7차	05.08.	세계자연유산 제주의 지질학적 특성과 가치 (손영관,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국립공주 박물관에서 느끼는 기증문화재	8차	07.17.	특별전 ‘국립공주박물관 기증유물’ 연계 강좌 I	기증유물 특별전 (07.09.~08.25.)
	9차	07.24.	특별전 ‘국립공주박물관 기증유물’ 연계 강좌II	
	10차	07.31.	특별전 ‘국립공주박물관 기증유물’ 연계 강좌III	
	11차	08.07.	특별전 ‘국립공주박물관 기증유물’ 연계 강좌IV	
	12차	08.14.	특별전 ‘국립공주박물관 기증유물’ 연계 강좌V	
국립공주 박물관에서 느끼는 한성백제	13차	10.02	특별전 ‘수춘리 발굴 10주년 기념전’ 연계 강좌 I	수춘리 발굴 10주년 기념전 (09.16.~11.20.)
	14차	10.16.	특별전 ‘수춘리 발굴 10주년 기념전’ 연계 강좌II	
	15차	10.23.	특별전 ‘수춘리 발굴 10주년 기념전’ 연계 강좌III	
	16차	10.30.	특별전 ‘수춘리 발굴 10주년 기념전’ 연계 강좌IV	
	17차	11.06.	특별전 ‘수춘리 발굴 10주년 기념전’ 연계 강좌V	
	18차	11.13.	특별전 ‘수춘리 발굴 10주년 기념전’ 연계 강좌VI	
	19차	11.20.	특별전 ‘수춘리 발굴 10주년 기념전’ 연계 강좌VII	

※ 상기 일정 및 강의 내용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